

북미 화인화문소설에 나타난 화인의 초국적 세계 인식과 표현*

김혜준**

<目 次>

1. 코로나19와 초국적 세계
2. 초국적 세계 인식과 표현
 - 1) 이주의 대량화, 일상화와 인간의 전 세계적 상호 연결
 - 2) 이동 수단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고도 발달 및 초국적 세계 인식의 형성
 - 3) 스케일 변화, 지구 환경 보호, 대중문화 유행, 문화 혼종
 - 4)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의 등장과 혼종적 유동적 정체성
3. 화인화문문학과 트랜스내셔널 문학

1. 코로나19와 초국적 세계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다. 2019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釜山大學校 中文科 教授. dodami@pusan.ac.kr

년 12월 처음 발병 사례가 보고된 이후 전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의 확산을 막으려고 해왔다. 한편으로는 국가와 권역별로 국경 등의 각종 경계를 봉쇄 또는 통제하고 인적 물적 이동을 제한하면서, 한편으로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왔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만큼 새로운 사고·정서·행동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몇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경계의 봉쇄·통제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초국적으로 넘나든다는 것, 전 세계적 범위의 자원·정보·사람의 초국적인 이동 역시 일시적으로는 지장이 있더라도 이미 불가역적인 일이라는 것, 전 세계적 범위에서 사고하면서도 전 세계를 국가들의 결합으로 보거나 동질적인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인 존재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보는 초국적 세계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1990년대 초부터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는 이와 관련해 상당히 치열한 논쟁과 검토가 있었다. 근래 들어 관심이 상대적으로 다소 누그러진 상태이지만,¹⁾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항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영역에서 특정한 단일 시스템이나 단일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는 의미에서의 세계화(지구화)는 실현되기 어렵지만, 이제 인간의 삶이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세계 전체(지구 전체)를 단위로 하는 네트워크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1) ‘글로벌리제이션’ 개념이 제기된 초기에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전 세계적 주도에 주목함으로써 주로 ‘경제적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나중에는 문화 등 여러 영역에까지 확산되면서 이 개념에 찬성, 반대, 질충하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뒤에서 다시 언급할 예정인)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이라는 개념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초기에는 ‘세계화’라는 번역어가 성행했으며, 나중에 다른 영역에까지 확대되면서 ‘지구화’라는 번역어가 병용되었다. ‘글로벌리제이션’에 관한 세 가지 핵심적 사회이론에 대해서는 앤서니 엘리엇(2020: 521-573)을 참고하기 바란다.

는 것이다. ‘글로벌 의식(global consciousness)²⁾과 같은 말은 바로 이를 의미한다. 다만 이런 표현은 그 사용 과정에서 문제점을 나타냈다. 국가와 국경이라는 개념이 내면화하고 있는 단일성·동질성을 세계(지구) 단위에 확대 적용하고, 머잖아 국가와 국경이 소실되면서 단일적이고 동질적인 세계(지구)가 국가 단위 모자이크로서의 세계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런 표현보다는 국가들의 결합함으로써 세계도 아니고 단일적이고 동질적인 세계도 아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세계’를 전제로 하는, 경계 가로지르기라는 의미를 내포한 ‘초국적 세계 인식(transnational consciousness)’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³⁾ 이는 국가와 그 경계가 고정불변하며 영구 불멸할 것이라고 보는 것에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글로벌리제이션의 진행에 따라 그것들이 미구에 무효화하고 무력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서 국가와 국경은 다소간 유연화되면서도 상당 기간 존속하고 영향력을 유지해나갈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온 우리의 관념과 행위에는 절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에서 출발하여, 이 글에서는 지난 20여 년 사이에 발표된 북미 화인화문소설을 대상으로 하되 가능하면 최신작에 집중하여 화인의 초국적 세계 인식과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국적 이주자 문학의 일부로서 화인화문문학과 ‘트랜스내셔널 문학(transnational literature)’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만일 나의 예상이 맞는다면 그 자신이 초국적 이주자인 화인 작가가 창작한 북미 화인화문소설은 초국적 세계 인식과 표현을 잘 보여줄 것이다. 또 화인

2) 오스터함멜·페테르손(2013: 8)

3) 오경환(2009)에 따르면, 트랜스내셔널리즘은 국민국가 중심적 사고와 서구 중심주의의 동시적 극복, 새로운 전지구적 현실에 반응하는 새로운 상황적 윤리의 도출, 이들에 대한 구성적인 접근 등을 추구한다. 예컨대 장-뤽 낭시(Jean-Luc Nancy)는 ‘글로벌리제이션’이 전파하는 경제적, 기술적 획일화가 아니라 국경과 자본을 넘어선 사회적 정의의 추구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상상한다.

화문소설 내지 화인화문문학은 국민국가 단위를 기반으로 하는(사실상 서구의 관념을 근본 기준으로 하는) 현행의 ‘세계문학’이 아니라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그리고 서구의 관념을 근본 기준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트랜스내셔널 문학’과 많은 접점이 있을 것이다.

2. 초국적 세계 인식과 표현

1) 이주의 대량화, 일상화와 인간의 전 세계적 상호 연결

『礪堡』(陳河, 2018)는 2000년대 중반 알바니아 영주권을 가진 화인 주인공 阿禮가 중국에 다니러 갔다가 알바니아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환자로 오인되면서 벌어지는 갖가지 당혹스러운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소설에는 阿禮를 위시한 화인 및 중국인, 그의 부인 瑪尤拉를 비롯한 집시족 및 알바니아인, 그리고 아프리카, 아랍, 발칸반도 출신의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등장인물 대다수는 이주, 가족 방문, 학업, 사업, 휴가 등의 갖가지 이유로 빈번하게 국경을 넘나드는데, 그 활동지는 알바니아 외에 중국, 이태리, 스위스, 그리스, 프랑스, 스웨덴, 발칸반도 등에 걸쳐 있다.

『罌粟, 或者加州罌粟』(二湘, 2018)도 이와 유사하다. 2010년 전후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국적의 화인인 화자 我(亨利)가 베트남 출신 화인 2세대로 역시 미국 국적을 가진 주인공 阮華勇(大衛)를 알게 되면서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의 삶을 서술해 나간다. 이 작품 또한 두 사람 외에 아프가니스탄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말레이시아인, 유럽계 및 비유럽계 미국인 등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주인공 등 등장인물 다수는 베트남 전쟁·중월 전쟁·아프가니스

탄 전쟁 등 다국적 전쟁의 참전 또는 그로 인한 피난이라든가 UN이라는 초국적 국제기구의 근무 등과 관련하여 거듭해서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나든다.

이 두 작품 외에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족의 인물들이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나드는 작품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離岸流」(凌嵐, 2018), 「胭脂」(張翎, 2018), 「瑪格麗特的故事」(黃鶴峰, 2008), 「洋插隊」(少君, 2005), 「巴黎來客」(王瑞芸, 2005), 「紙鶴」(凌波, 2005), 「好小夥子」(範遷, 2005), 「老藝術家之死」(曹小莉, 2003), 「老兵」(諾拉, 2003), 「開工第一日」(劉慧心, 1999) 등이 모두 그렇다. 이는 물론 화인 작가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반영한 것이자 전 세계의 현실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작품들이 나타내듯이 오늘날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사람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졌다. 관광, 출장 등의 일시적인 여행자는 말할 나위도 없고, 국제이주자(초국적 이주자)만 해도 UN(2017: 2019)의 통계에 따르면 1965년의 7,500만 명에서 2000년 1억 7,300만 명, 2010년 2억 2,000만 명을 거쳐, 2019년에는 약 2억 7,200만 명에 이를 정도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초국적 이동에는 세계의 절대 인구가 1세기 동안 약 3배가 늘어날 정도로 급증한 것,⁴⁾ 경제 시스템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필수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 독주로 변화한 것, 이동 수단 및 그 운용 방식이 급속도로 발달한 것 등을 포함해서 수많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요컨대 인간의 전 세계적 이동은 이미 일상화, 대량화되었으며, 그 결과 인간은 집단으로서의 인류에서부터 개체로서의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상호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작품에서 이런 상황을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는 두 작품만 예로 들어보자. 먼저 「礪堡」(陳河, 2018)이다. 阿禮는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일터를 잃고 알바니아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중국으로 역이주를 하게 되고, 결국 義烏에서 무역 통역 겸 중개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업무 경험과 언어 능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4) T. H. 에릭슨(2019: 136).

중국의 내륙 도시인 義烏가 염가의 일용품 도매 무역 분야에서 전 세계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소설에서는 아프리카, 아랍, 발칸반도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중국어, 영어, 알바니아어 등 온갖 구두 언어와 신체 언어를 섞어가며 서로 무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곧 그들 각각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집단 사이의 상호 연결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설에서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⁵⁾

다음 작품은 「寂寞沙洲冷」(範遷, 2017)이다. 주인공인 화인 남성은 실리콘 벨리의 직장을 조기 퇴직하고 현대 사회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오리건 주의 한적한 쿼즈 베이(Coos Bay)에서 이웃과 단절된 채 홀로 거주한다. 작품은 그의 호젓한 또는 고독한 삶을 잔잔한 어조로 그려낸다. 그러나 이런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삶은 결코 고립적이지 않다. 그는 전문가답게 집안 여기저기에 컴퓨터를 3대나 비치해 두었으며(아마 인터넷으로 세계 곳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했을 것이다), 대학 동창회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과 같은 화인 후배 여성을 알게 되고, 그 후 페이스북과 위챗(微信)으로 종종 밤늦게까지 그녀와 소통을 한다. 그러던 중 그녀가 인근 지역에 출장을 오자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고(아마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했을 것이다) 결국 집으로까지 초대하게 된다. 그들이 만나서 먹고 마시는 음식은 현지의 것을 포함해서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것이거나 그 조리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가 입은 옷이라든가 그가 거주하는 집의 물품들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결국 이 작품의 주인공은 표면적으로는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300년 전의 소설 주인공인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

5) 소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義烏 시장은 비할 데 없이 거대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의 방방곡곡과 연결되어 있으니, 날마다 이곳에서 수천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세계 각지로 출발한다.”(夏商, 2019: 84) 아마 사족일 텐데 ‘아프리카, 아랍, 발칸반도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문에서 언급한 ‘그들 각각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집단’이 곧 ‘국민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과 흡사하다.⁶⁾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인간의 상호 연결이 단지 물리적인 접촉에서 그치지 않고 비물리적인 접촉으로까지 확장되며, 또 그런 비물리적인 접촉이 갈수록 더욱 고도화 광범위화한다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자. 1950년대가 시대 배경인 「他鄉是故鄉」(余緣治, 2003)의 주인공 倩兒은 이른바 우편 신부이다. 빈한한 가정의 딸인 그녀는 1년여의 서신 교환을 통해 남편 林安迪와 결혼을 약속하고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한다. 2000년대 초를 시대 배경으로 하는 「夢醒時分」(秋塵, 2008)의 이민 15년 차인 상하이 출신 주인공 阿諾는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국제전화화를 통해 岫儀와 결혼을 약속하고, 베이징으로 가서 결혼식을 마친 후 혼자서 먼저 미국으로 돌아온다. 시대 배경이 더욱 최근으로 설정된 「沉默的母親」(張惠雯, 2018)은 모두 3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광시 소도시의 교사 출신인 李霞이다. 그녀는 결혼을 위해 무진 애를 애쓰다가 인터넷 결혼 중개 홈페이지(國際聯姻網站)를 통해 백인인 沃克와 알게 되고, 중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沃克太太가 된다. 세 작품을 함께 놓고 보면 시대에 따라 정보 통신이 급속히 발전해나가는 것과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여실히 드러난다.

만일 이 세 작품이 기본적으로는 비물리적인 접촉이 물리적인 접촉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임을 표현하고 있다면, 다음 예들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太陽照舊升起」(夏嬭, 2019)의 주인공 林海嵐은 남편이 외도를 되풀이하자 자녀 교육을 핑계로 미국에 이주하는데, 중국에 남은 남편과는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며 연락한다. 「沉默的母親」(張惠雯, 2018)의 沃克太太는 인터넷을 통해 국제결혼 한 것에

6) 로빈슨 크루소는 항해 중 배가 난파하여 무인도에서 혼자 생존한다. 그러나 그의 사고와 행동에서부터 그가 가진 지식과 물품에 이르기까지, 당시 모든 면에서 급속도로 팽창해나갔던 영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그가 나중에 식민종에게 잡아먹힐 뻔한 프라이데이의 목숨을 구해주고 사실상 노예로 삼으면서 개종시키려 한다는 설정까지 고려한다면 그는 식민제국으로서의 영국 그 자체나 다름없다.

그치지 않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중에도 수시로 태평양 너머 중국의 동생들과 위챗으로 연락하고 지낸다. 또 같은 작품의 세 번째 이야기에서 화자의 아버지는 병 치료를 위해 중국으로 되돌아간 어머니와 2, 3일에 한번씩 국제전화로 통화를 한다. 물론 이 점은 앞서 「寂寞沙洲冷」(範遷, 2017)의 두 남녀가 페이스북과 위챗으로 서로 연락하는 데서도 볼 수 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인간의 상호 접촉과 연결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위성방송, 인터넷, 화상회의, 영상 통화, 이메일, 카톡·위챗과 같은 문자 전송,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은 설령 물리적으로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 위치하더라도 사실상은 동일한 시공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⁷⁾

2) 이동 수단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고도 발달 및 초국적 세계 인식의 형성

이미 위의 여러 예에서 보았듯이 화인 작가들은 이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화인 작가는 이런 변화를 표현하는 특정 문구를 직접 사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爲了維克托」(王芫, 2017)이 그렇다. 소설은 아들 維克托의 베이징 호구 취득이 불발되자 캐나다로 가족 이민을 하는 주인공 邱振鋒과 海倫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각양각색의 소소한 상황을 약간 익살스럽게 보여준다. 그런데 소설 중간에 부부가 태평양을 마주하고서 잠시 떨어져 사는 부분에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세계는 평평하고 지구는 한 마을이지만, 여전히 24개의 시간대는 존재한다.

7) ITU(2021: iii)에 따르면 약 26.9억 명(세계 인구의 약 36%)이 이동통신을 통한 인터넷 접속에서 소외된 채 오프라인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인간 개개인이 모두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이른바 디지털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위성방송을 포함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직간접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행히도 邱振鋒과 海倫 사이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니, 邱振鋒이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이었다.”(夏商, 2019: 357-358)

여기서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문구는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이 인터넷 등 정보 통신의 발달과 경제적인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게 됨으로써, 개인·기업·국가 등을 막론하고 전 세계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쓴 것이다.⁸⁾ 그리고 ‘지구는 한 마을’, 즉 ‘지구촌’이라는 문구는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이 전자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전 세계가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치의 충돌과 문화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종의 통합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용한 것이다.⁹⁾ 다시 말하자면, 이 작품에서 작가는 인간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소셜 속 부부가 정확히 12시간의 시차가 있는 지구 반바퀴의 거리의 물리적 시공간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실시간으로 서로 접촉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런 변화는 사실 모두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礪堡」(陳河, 2018)에 나오는 劉甘肅은 중국의 외과 의사 출신으로 스위스로 이주하여 음식점 종업을 거쳐 알바니아에서 기업을 경영하게 되는데,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스위스를 오가면서 휴가철이 되면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전 세계를 주유한다. 「離岸流」(凌嵐, 2018)의 중국 대륙계 화인인 화자 부부는 20여 년 전인 1990년대 초 막 LA에 이주했을 때 자동차 강도를 만나고 부인이 아이를 유산한다. 어느 날 화자는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지하철을 탔다가 자신도 모르게 타이완 관광객들을 따라 그리피스 천문대 근처 역에서 내리고, 거기서 다시 또 지하철에서 쏟아져나오는 수많은 아시아계 및 멕시코계 관광객과 마주친다. 「雪」(夏商, 2018)은 2000년대 초

8) 프리드먼(2013: 15-70) 및 프리드먼(2020: 42-67) 참고. 프리드먼의 이런 언급은 변화의 일면을 강조한 것으로, 과연 그의 말처럼 실제로 동등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9) 맥루한(2005: vii-x vi) 참고.

중국 남방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불임 부부의 알콩달콩한 생활과 어물전 꼬마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보통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풍경화처럼 그려 내는데, 아내가 애정 섞인 투정을 하자 남편이 그동안 지키지 못한 결혼 전의 동남아 관광 약속을 결혼 10주년에는 꼭 지키겠다고 한다.

작품에서도 나왔듯이 해외 관광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해외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UNWTO(2010: 2020)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 관광객의 숫자는 1995년에 5억 6,500만 명이었다가 2010년의 9억 5,600만 명을 거쳐 2019년에는 14억 6,000만 명에 이른다. 이와 같은 해외 관광객 폭증의 바탕에는 자동차부터 항공 여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컴퓨터부터 휴대전화에 이르기까지, 고도로 발달한 이동 수단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자리 잡고 있다.¹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관광 방문객과 관광 종사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고 다양한 방면에서 서로 비교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초국적 세계 인식을 가지게 된다.¹¹⁾

물론 이런 변화는 정주자와 이주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동의 성격, 범위, 빈도를 고려해볼 때 아무래도 보통의 정주자에 비해 초국적 이주자에게 이런 변화가 더 직접적이고 민감하게 작용한다. 특히 이주 행위 자체에서부터 이미 이런 변화가 작용하고 있는데, 21세기의 초국적 이주자는 이주 준비에서부터 이주 진행 및 이주지 거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과거의 이주자와는 다르다. 이들 역시 이주의 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혈연 및 지연 네트워크라든가 중개인과 중개기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과거의 이주자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이들은 더욱 전문화된 중개인(중개기구)은 물론이고 더욱 발전된 이동 수단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자원을 확보하면서, 사전 사후에 충분히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르다. 이들은 직업·거주 지역·주택 등을 사전 결정하는가

10) 엘리엇(2020: 566-570) 참고.

11) T. H. 에릭슨(2019: 153) 참고.

하면, 이주지 도착 후 화인 집거지인 차이나타운에 거주하기보다는 교외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생활에 장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준비해서 이주한다.¹²⁾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爲了維克托」(王芫, 2017)의 邱振鋒처럼 이주지의 사전 방문과 같은 물리적인 초국적 이동뿐만 아니라, 「沈默的母親」(張惠雯, 2018)의 沃克太太처럼 첨단 통신과 미디어를 사용하는 비물리적 초국적 이동까지 활용한다는 점이다. 즉 오늘날 변화한 세계에 맞춰서 수시로 자신이 처한 물리적 시공간과는 전혀 다른 시공간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주자든 아니면 이주자든 간에 오늘날 사람들은 전 세계에 걸친 자원·정보·사람의 초국적인 이동의 일상화·가속화, 또는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말한바 정보 통신과 교통 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간과 공간의 압축(space-time-compression)’¹³⁾과 더불어 전 세계적 범위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초국적인 존재로서) 전체 세계를 하나의 범주로 보는 초국적 세계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앞서 보았듯이 많은 작품에서 때로는 은연중에 때로는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3) 스케일 변화, 지구 환경 보호, 대중문화 유행, 문화 혼종

일찍이 루이스 리처드슨(Lewis F. Richardson)은 1951년에 작성하고 그의 사후인 1961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국경선의 길이는 그것을 계측하는 기준이 되는 직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브누아 망델브로(Benoit Mandelbrot)는 이를 활용하여 1967년에 구불구불한 영국 해안선의 길이는 지도의 스케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해안선의

12) 이상 일부 내용 周敏(2004: 75-112) 참고.

13) 하비(1994: 194-195, 294)는 자본주의의 발전, 정보 통신과 교통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생활의 속도가 빨라지고 공간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짐에 따라 마치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압축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있다고 말했다.

독특한 불규칙적인 특징은 그것을 내려다보는 고도를 달리하여 보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¹⁴⁾

이런 설명에서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초국적 세계 인식의 형성은 달리 보면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서 스케일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해안선을 측정할 때 스케일을 조정하듯이, 우리는 이제 좁인과 좁아웃이란 방식으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일상에서 디테일한 삶을 살면서도 개인의 삶이 전체 세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달리 말해서 우리에게서 국가를 동질적인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면서 전체 세계를 국가들의 모자이크로 본다거나, 또는 국가를 동질적인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는 사고가 단순 확대되어 전체 세계 자체가 동질적인 하나의 단위라고 보는 것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아마도 오늘날 이런 스케일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국가적 경계를 넘어 전체 세계에 위협이 되는 환경 오염, 기후 변화 등의 문제와 관련된 생태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대처일 것이다. 이 점은 그 자신이 초국적 이주자에 속하면서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활하는 화인 작가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작품에서도 자주 표출되고 있다. 중편 『獐』(陳河, 2013)는 화인인 주인공 斯蒂芬의 집에 너구리가 침범하면서 이후 새끼까지 낳는 등 사람과 너구리 사이에서 기상천외한 각양각색의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너구리를 물리치기는 하지만 오히려 동물 학대와 무기 사용으로 체포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공존할 것이며 어떻게 생태 환경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든다.¹⁵⁾ 또 다른 중편 『虎妹孟加拉』(陳謙, 2016)은 조기 유학생 출신으로 대학생이 된 玉蘅가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 중 만난 어린 호랑이를 ‘孟加拉’라고 이름 붙여 마치 여동생처럼 돌보기 시작하고, 그 후 정작 사람들과는 점점 소원해지는 반면에 갈수록 맹수의 본능을

14) 웨스트(2018: 189-210) 및 로네(2021: 131-138) 참고.

15) 公仲(2014) 참고.

드러내는 ‘孟加拉’에게 오히려 집착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서술한다.

대중문화의 전 세계적 유행 역시 스케일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 가지 현상이다. 「白喜」(李彦, 2009)는 화자가 老裴의 급사를 계기로 이민 후 이룬 것도 없이 교회 일에만 열심이었던 그와 그 주변 사람 — 화인 이주자의 삶을 되짚어보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중간에 裴太太가 남편과 신경전을 벌일 때 그녀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온종일 소파에 드러누워 한국 드라마 등 텔레비전만 보는 장면이 나온다. 「夢醒時分」(秋塵, 2008)에서는 미국에서 온 화인 阿諾가 중국의 신부감 岫儀와 만났을 때, 전자가 싸구려라며 거부하는데도 후자는 매번 맥도날드를 고집하면서 그것이 고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의 문화 생활은 지방(local), 지역(regional), 국가(national)라는 스케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류’ — 대장금·BTS·기생충·오징어게임 등 한국 대중문화의 전 세계적 유행에서도 보듯이, 이제 각종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 범위에서 유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맥도날드, 코카콜라, 나이키, 아디다스, 루이비통, 구찌, 애플, 갤럭시, 디즈니, 넷플릭스 등 많은 브랜드가 전 세계적인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이렇게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 범위에서 유행한다고 해서 앞으로 전 세계의 문화가 획일화·몰개성화될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 레게 음악을 예로 들어보자. 카리브해 연안과 북미에서 특히 성행하는 레게는 무형적인 기억·감정·감각 내에서 미학적으로 움직이면서, 또한 새로운 공학·경제적 네트워크·초국가적 통로에 의존하며 그것에 의해 변형되는 경제적인 상품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레게 음악은 레게 원자재를 자메이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캐나다 레게 매니아들에 의해 지역의 다른 요소가 믹스되고, 그 혼종된 레게 음악은 같은 통로를 따라 자메이카로 되돌아간다.¹⁶⁾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동하는 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혼종된다는 것이다. 즉 대중문화는 한편으로는 일종의 상품이

16) 김영민(2009) 참고.

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지역의 요소가 혼합되어 피드백되는 것이다.

롤랜드 로버트슨(Roland Robertson)은 일찍이 이렇게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 진행되는 것 또는 동질화와 이질화 현상이 동시 발생하는 것을 두고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이라고 불렀다.¹⁷⁾ 그의 설명 그대로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의 득세, 정보 통신의 발전, 문화 산업의 발흥, 마케팅 범위의 확대 등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적 범위에서 문화적 동질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이질화 현상이 동반되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하다. 따라서 실제로는 항상 문화적 혼종화가 진행 중이며 한때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문화의 표준화·동질화·단일화 현상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¹⁸⁾

물론 대중문화의 혼종을 포함해서 문화의 혼종 현상 그 자체는 근래에 들어서 비로소 생긴 것은 아니다. 문화의 접촉이 있었던 곳에는 늘 문화의 혼종이 있었다. 다만 이것이 새삼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문화의 혼종이 이제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소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여기서 문화의 접촉이란 곧 문화 집단 간의 접촉을 뜻하며, 문화 집단 간의 접촉이란 문화 집단 구성원들의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문화의 혼종이란 문화 집단 구성원 각자의 다른 문화와의 접촉 경험 축적에 따른 문화 행위의 변화를 뜻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문화의 혼종은 다른 누구보다도 특히 출발지 문화와 이주지 문화의 차이를 강렬하게 경험하는 화인과 같은 초국적 이주자에게서 더욱 일상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17) 로버트슨(2013: 289-293) 참고.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Robertson(1992: 172-174)에서 ‘glocalize’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18) 다만 이 말이 문화적 혼종은 정치적·경제적 권력 등과는 무관하게 문화 그 자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한수경(2011)은 대중문화의 혼종화가 ‘다양한 문화의 혼성’이 아니라 ‘미국의 할리우드와의 혼합’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예컨대 한류는 서구문화를 모방해 창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리우드와 경쟁하는 문화 현상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작품에서 외형상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화인 작가의 작품에는 인치(英寸)·피트(英尺)·마일(英里)·온스(盎司)·파운드(磅)·화씨(華氏)… 등과 같은 북미식(미국식) 도량형 단위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또한 「夜歸」(呂紅, 2019), 「藍繡球」(李一楠, 2018), 「爲了維克托」(王芑, 2017), 「生死之間」(孫博, 2009), 「他是我弟弟, 他不是我弟弟」(陳浩泉, 2009), 「再生花——「秦香蓮之演出」之二」(冬青, 2009), 「瑪格麗特的故事」(黃鶴峰, 2008), 「熱炒」(融融, 2008), 「日落舊金山」(呂紅, 2008), 「拼版遊戲」(夏維東, 2008), 「陪讀父親」(朱琦, 2005), 「鹹淡人生人生」(邵丹, 2005), 「永福里」(宇秀, 2005), 『尋找伊甸園』(陳浩泉, 2004), 「流星快遞」(施政達, 2003) 등 수많은 작품이 그렇듯이 뽀런타인데이·헬러윈데이·뽕스기빙데이·크리스마스 등 서양 명절이 등장한다. 더구나 「Silent Night」(自先勇, 2016)는 제목에서부터 이미 짐작할 수 있다시피 아예 크리스마스가 그 배경이다. 그런데 때로는 추석·설날·단오절 등에 비해 오히려 서양 명절에 관한 상황이 더욱 자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예컨대 「爲了維克托」(王芑, 2017)에는 설날과 크리스마스가 모두 등장하는데, 설날에 관해서는 주인공 邱振鋒이 아내 海倫을 보러 처가에 들렀다는 한 줄로 그치지만, 크리스마스에 관해서는 아들 維克托와 둘 사이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및 산타클로스의 실존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갖가지 ‘밀당’까지 포함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된다.

이렇게 북미의 문화적 관행과 관념은 어느새 화인의 행동과 사고에 유무형으로 스며들고 있으며 그만큼 작품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포용이 아니라 서양식 의례적인 인사로서의 허그는 「寂寞沙洲冷」(範遷, 2017)에서 처음 만난 대학 선후배인 화인 남녀 사이라든가 「罌粟, 或者加州罌粟」(二湘, 2018)의 화자 我와 주인공 阮華勇 사이에서도 행해질 만큼, 현지인(비화인)과 화인 사이는 물론이고 화인과 화인 사이에서도 흔하게 행해진다. 일종의 서양식 습속으로서 연모하는 사람에게 카드와 함께 꽃을 배달시키는 일도 일상화된다. 「夜歸」(呂紅, 2019)는 대륙 출신 小宇의 시각으로 홍콩 출신 艾米가 6년간 화인 신문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그린카드를 얻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서술하는데, 벨런타인 데이에 예쁘고 일 잘하는 艾米에게 누군가가 커다란 꽃무음을 보내온다. 또 「叛逆玫瑰」(孫博, 2005)에서 홍콩 기업의 토론토 지사에 근무하는 타이완 출신 여주인공 馬珊은 상사인 홍콩 출신 司徒劍과 결혼하기 전에 의문의 인물(사실은 같은 타이완 출신 동료인 吳志剛)로부터 12주 연속 장미꽃을 받는다.

만일 이런 것이 표면적인 현상이라면, 미묘하고 복잡한 경우도 적지 않다. 「人間四月雪」(沙石, 2019)은 중국에서 농촌 출신 아버지 鍾老漢이 실리콘 벨리에 근무하는 아들 鍾偉 집에 다니러 와있던 중에 이미 제법 미국화한 아들 가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소한 갈등들을 서술한다. 예컨대 이렇다. 鍾老漢은 평소 어린 손자가 예사로 음식을 남기고 며느리도 아무렇지 않게 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못마땅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들이 만일 어릴 때 그랬다면 다리를 분질러 놓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간 내심으로 줄곧 불만이던 며느리 琳達가 여기는 미국이라 아이에게 손찌검만 해도 감옥 간다고 대꾸한다. 이처럼 작품은 중국인인 아버지와 화인인 아들 가족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통해 화인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혼종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어떤 작품들은 화인 이주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문화적 혼종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我們的兒子跟別人的不一樣」(葛逸凡, 2009) 등 노인 세대와 성년 세대 사이, 「成年」(余曦, 2008), 「頭髮問題」(曉寄, 2008) 등 이주 1세대와 1.5세대 및 2세대 사이, 「嚴冬」(金依, 2009)과 「溫哥華的私房菜」(也斯, 2009) 등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의 밑바닥에는 각자가 이주지 문화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가 작용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이는 초국적 이주자로서 화인의 다양한 문화 혼종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⁹⁾

일부 작품은 화인이 이주지에서 겪는 문화적 충돌, 갈등, 혼재, 조화, 융합 및 새로운 혼종적 문화의 생성에 관한 다양한 양상을 주요 소재 내

19) 이 작품들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김혜준(2018)과 김혜준(2020)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는 주제로 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장편소설 『北美楓情』(牧童歌謠, 2018)은 1990년대 초 미국 중서부의 대학에 유학을 온 젊은이들이 학업과 정착의 과정에서 겪었던 학업에서의 분투, 생활에서의 고투, 이국에서의 애정, 직장에서의 고초, 가정에서의 갈등, 특히 중서 문화의 충돌 등을 되돌아보고 있다. 그 중 陸克儉과 沈燕妮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 중국의 전통 문화 관념과 미국의 새로운 문화 관념의 마찰 사이에서 일어나는 남편의 부모에 대한 순종과 가족에 대한 화풀이, 아내의 인내와 율화, 성장기 두 아이의 뒤틀림 등은 극단적인 상황 직전까지 이를 정도였다.²⁰⁾ 이처럼 문화적 차이에 의한 충격·고통·곤혹·방황·초조·맹목·피동적 수용 등을 표출하거나 문화적 차이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표현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북미 화인화문소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이자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1980-1900년대의 『遠行人』(蘇煒, 1987), 『藍土地, 遠行者』(葉凱蒂, 1996), 『叢林下的冰河』(查建英, 1995), 『早安, 美利堅』(薛海翔, 1995) 등에서부터 2000-2010년대의 『美國愛情』(葉周, 2001), 『素素的美國戀情』(融融, 2002), 『人生自白』(少君, 2003), 『海鷗南飛』(凌之, 2004), 『夫妻筆記』(融融, 2005), 『夢斷德克薩斯』(曾曉文, 2006), 『香火』(笑言, 2008), 『你來, 我走——一個中國女人的移民日記』(堯堯, 2009), 『洛杉磯的中國女人』(劉加蓉, 2009), 『羅坎村』(袁勁梅, 2009), 『老康的哲學』(袁勁梅, 2009), 『青門里志』(袁勁梅, 2012), 『夢在海那邊』(洪梅, 2012), 『楓葉爲誰紅』(王海倫, 2016), 『北美楓情』(牧童歌謠, 2018)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이 이에 속한다.²¹⁾

20) 海雲(2018) 참고.

21) 湯俏(2020) 및 豐雲(2021) 참고. 두 연구자는 각기 1980년대 이래 ‘신이민’(중국 대륙 출신 화인)의 화문문학과 화문소설을 개괄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유의 작품이 언제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이 점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평가한다.

4)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의 등장과 혼종적 유동적 정체성

이와 같은 여러 층차와 범주의 문화 혼종 현상에서도 보다시피, 오늘날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고 빨라지는 전 세계적인 범위의 변화는 사람들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화인을 포함한 초국적 이주자의 삶과 사고·감정·행동에는 한층 더 직접적이고 심대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초국적 이주자의 인식과 표현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초국적 이주자에 대한 자타의 판단 역시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20세기 중반까지 초국적 이주자는 사실상 영원히 출발지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이주지에 거주하면서도 이주지에 속하지 않고 늘 출발지에 속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1960년대 이후 널리 확산된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용어는 바로 이 점에 중점이 있었다.²²⁾ 그때까지 대부분의 초국적 이주자들은 추방, 망명, 난민, 이민, 유괴, 납치, 계약 노동 등 그 이주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이주지에서 영구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주관적으로는 이는 ‘장기 체류’일 따름이고 언젠가는 출발지인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²³⁾ 『奔流』(黃運基, 1996)는 작가 자신이 이주했던 1940년대 말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주인공 余念祖와 그의 아버지 余榮祖의 이름에서부터

22) 그리스 말에서 유래한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는 원래 그리스의 식민지 경영에 따라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했으며, 나중 가나안에서 쫓겨나 이방을 떠돌게 된 유대인을 일컫는 말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1966년 조지 셰퍼슨(George Shepperson)이 탈식민지화와 정치적 해방의 과정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인의 디아스포라(African diaspora)’라는 용어를 제안했고, 이때부터 기본적으로 출발지의 종족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출발지에 대한 귀속성은 강한 반면 이주지에 대한 귀속성은 비교적 약한 초국적 이주자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김영민(2009: 90) 참고.

23) 쿤(2014: 17, 30)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화인은 영구적으로 정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일한 다음 고향과 공동체로 돌아가려 했고, 수백만의 화인이 실제로 ‘체류’라고 알려진 행동을 하였다. 이런 화인의 체류 관념에는 수입 일부를 내놓는 도덕적 의무와 함께 시간·거리에 상관없이 재산의 공동 분배를 보장받는 중국의 ‘가산 공유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알 수 있듯이 등장인물 대부분에게는 ‘고국’에서 비롯된 집단기억과 집단 문화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인공의 백부인 余定邦은 20여 년간 미국 생활을 한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떠나는 余念祖에게 이름처럼 절대로 조상을 잊지 말고, 백인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며,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한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차츰 상황이 달라졌다. 국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교통이 더욱 발달하면서 출발지와 이주지를 오갈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 특히 이주 2세대 이후의 사람들은 1세대에 비해 집단기억과 집단문화의 작용이 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국’으로의 귀환 보다는 현 거주지에서의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대거 생겨났다. 「他鄉是故鄉」(余緣治, 2003)의 倩兒은 비록 결혼을 약속하고 토론토에 이주했지만 처음에는 홍콩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대한다. 그러나 점차 캐나다에 적응하면서 예정대로 林安迪와 결혼을 하고 토론토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 사랑하게 된다. 그 뒤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고 임신 중이던 아이까지 자동차 사고로 잃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당시 매주 항공편이 있던 홍콩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캐나다에서 꾸뚱하게 살아나간다. 「玉牡丹」(崔維新, 1999)은 화자 我が 뻬쿠버 차이나타운에서 살던 어린 시절 할머니의 삶을 중심으로 가족사를 서술하면서 화인 후세대에 대한 편견과 주변화 및 정체성 변화를 보여준다. 그런데 작품의 시작 부분부터 범상치 않다. 83세의 조모가 별세할 무렵 뻬가 집안 운이 계속되는 징조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식으로 행동하는 부모를 보면서, 화자보다 몇 살 많던 형과 누나는 이미 모두 다 캐나다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 백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불안해한다.²⁴⁾

24) 원작은 영문 단편소설 *The Jade Peony* (Wayson Choy, 1978)로, 陳浩泉(1999)에 胡意梅의 번역으로 수록되어 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화인영문 장편소설인 *The Jade Peony* (Wayson Choy, 1995)는 바로 이 동명의 영문 단편소설을 개작한 것이다. 梁麗芳(2003: 287)에 따르면, 캐나다 태생 화인 작가의 영문소설은 윗세대의 이주 경험과 아랫세대의 성장 과정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어그러진 가족 관계를 통해서 화인 후세대에 대

이 작품들에서 보다시피 20세기 중반 이후 많은 초국적 이주자들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주지에 속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출발지와 거주지 양쪽 모두에 대해서 자신이 주변적인 위치에 처해 있음을 의식한다. 만일 이전의 ‘디아스포라’가 상대적으로 보아 일종의 ‘신체적·객관적 디아스포라’였다면, 이들은 일종의 ‘정신적·주관적 디아스포라’라고 할 만했다. 이 점은 중국대륙에서 출생하여 홍콩, 타이완을 거쳐 196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한 노작가 自先勇의 최근작인 「Silent Night」(自先勇, 2016)에서도 나타난다. 작품은 은연중에 종족 구분도 없고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구분도 없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데, 화인 2세인 주인공 余凡에게는 아예 출발지와 이주지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余凡은 홍콩계 밀입국자인 엄마의 사생아로 생부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백인을 포함해 엄마를 거쳐 간 다양 각색의 남자들로부터 구타와 성폭행까지 당하며 차이나타운에서 성장한다. 엄마가 죽자 거리의 아이가 되었다가 保羅 신부의 보살핌으로 어른이 되고, 신부(father)가 세상을 떠난 직후 다종족이 어울리는 술집에서 조우한 이탈리아계 喬舅가 성탄절 전야에 인사불성이 된 그를 자기 침대에서 조용히 채워준다. 작품은 신부의 썬더야말로 그가 ‘정신’을 의탁할 수 있는 진정한 첫 번째 집이었고, 동성애자 喬舅의 집에서 다시 평온을 찾은 것으로 묘사한다. 余凡이야말로 애초부터 돌아갈 곳도 없고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영원히 정신을 의탁할 집을 찾아 떠도는 인물인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 다시 상황이 바뀌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된 자발적 이주가 대폭 증가한 데다가, 이주 전이든 후든 간에 최신 정보 획득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고, 대부분 수시로 이주지와 출발지를 오갈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이주 자체가 일회성의 일방향적인 경우 외에 다회성이거나 쌍방향적인 경우도 늘어났다. 즉 이주 후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2차, 3차 이주를 할 수도 있고, 출발지로 되돌아와서 장기

한 편견과 주변화를 보여준다고 한다.

체류하거나 심지어 역이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罌粟, 或者加州罌粟」(二湘, 2018), 「紙鶴」(凌波, 2005), 「好小夥子」(範遷, 2005)에는 다수의 베트남 출신 화인 2세들이 미국으로 재이주한다. 「胭脂」(張翎, 2018)에는土豪라는 인물이 미국에서 프랑스로 재이주하고, 「我們的兒子跟別人的不一樣」(葛逸凡, 2009)에는 아들 부부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재이주한다. 「溫哥華的私房菜」(也斯, 2009)의 주인공 薛大貴와 「溫哥華的月亮」(陳浩泉, 2003)의 茂成은 캐나다로 이주했다가 각자 홍콩으로 역이주하여 그들 가족은 ‘기러기 가정’이 된다.²⁵⁾ 「沉默的母親」(張惠雯, 2018)의 세 번째 이야기 중 母親, 「維維安在美國的最後一天」(曾曉文, 2005)의 維維安, 「夢醒時分」(秋塵, 2008)의 阿黃 역시 각자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으로 되돌아간다. 「碉堡」(陳河, 2018)에는 이런 인물들이 더 많다. 알바니아 영주권을 가진 주인공 阿禮는 가족과 헤어져 중국으로 역이주하고, 四德는 프랑스를 거쳐 알바니아로 재이주했으며, 黎培는 어릴 때 이태리로 이주했다가 현재는 남편과 함께 알바니아에 거주한다. 劉甘肅는 스위스로 이주했다가 사업상 알바니아로 재이주했는데, 가족은 그를 따라 스위스를 거쳐 알바니아에 갔다가 영주권이 있는 스위스로 되돌아가 거주하고 있다. 후일 그는 다시 혼자 사라예보에서 생활용품 체인을 경영하면서 수시로 중국, 스위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오간다.²⁶⁾

초국적 이주자들의 변화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날의 초국적 이주자는 출발지 귀환을 전제로 하는 ‘장기 체류’ 관념보다는 애초부터 영구 이주를 전제로 하면서도 이주의 횟수나 장소와 무관하게 언제

25) 북미 화인화문소설에 표현된 ‘기러기 가정’에 관해서는 김혜준(2018: 2020)을 참고하기 바란다.

26) 사실 이런 상황은 다른 누구보다도 초국적 이주자로서 화인, 그 가운데서도 화인 작가들 자체가 그러하다. 예컨대 豐雲(2021: 54)에 따르면, 曾曉文·陳思進·雪城小玲은 미국에 거주하다가 캐나다로 재이주했고, 王芘·江嵐은 캐나다로 이주했다가 미국으로 재이주했으며, 張惠雯은 싱가포르로 이주했다가 미국으로 재이주했다. 嚴歌苓·少君·薛海翔·王威는 미국으로 이주한 상태이지만 여러 나라를 전전하거나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 활동 중이다. 施雨·秋塵·呂紅·陳謙·施瑋는 미국으로 이주한 후 중국에서 학위를 받거나 강의를 하는 등 중국에서도 활동 중이다.

나 출발지인 ‘고국’과 어떤 식으로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재이주의 경우 경유지(1차 이주지 등)와의 관계도 그러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날의 초국적 이주자는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 네트워크 및 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叛逆玫瑰」(孫博, 2005)의 馬珊과 司徒劍은 둘 다 캐나다 유학생 출신으로 직장에서 만나 가정을 꾸린다. 하지만 결혼 전이든 후든 간에 각자 타이완의 부모 및 홍콩의 아버지와 수시로 연락하고 내왕하는 등 홍콩과 타이완 쪽의 물질 심리적 지원을 받으면서, 이주지든 출발지든 간에 자신들이 가진 모든 초국적 네트워크와 자원을 유지 및 활용한다. 특히 司徒劍은 업무상 캐나다를 베이스로 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이주자에 대해서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특징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또는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간에 이동이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으면서, 이와 동시에 자신과 출발지-(경유지)-이주지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이 모든 곳을 ‘자원의 획득처’로 활용한다는 것이다.²⁷⁾

이처럼 ‘신체적·객관적 디아스포라’에서 ‘정신적·주관적 디아스포라’를 거쳐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의 등장은 초국적 이주자의 개인 정체성 및 집단 정체성에 변화가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거론한 『奔流』(黃運基, 1996)에 나오는 인물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 귀환을 전제로 해서 중국 국적을 유지하며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으로서 살고 있다. 이를테면 고립형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세기 중후반 이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當宇秀是露絲瑪麗的時候」(宇秀, 2009)의 화자는 원래 중국의 작가 겸 편집자 출신으로 2000년대 초 캐나다에 이주한 후에는 호텔 피혁점의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틈틈이 글쓰기를 이어간다. 그녀는 자신이 상황에 따라 宇秀와 Rosemary라는 두 개의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는데 그때마다 표정과 언어가 달라진다면 어찌 달라지는 게 그것뿐이겠느냐고 자문한다. 그리고

27) ‘자원의 획득처’라는 표현은 윤인진(2012: 18)에서 따온 것이다.

는 제법 오랫동안 宇秀로서 살고자 했지만 차츰 두 이름의 상황을 모두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이중형 정체성을 보이는 것이다. 「胭脂」(張翎, 2018)는 더욱 혼란스럽다. 작품의 세 번째 부분의 주요 사건은²⁸⁾ 아들의 난치병 치료를 위해 파리로 와서 추나를 하며 지내는 神推(李蕊)가 미국을 거쳐 파리에 와서 동서양의 골동품 수집 일을 하는 土豪의 수중에서 왕년에 그녀의 할아버지 黃仁寬이 그린 모작 그림을 되찾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神推라는 인물도 복잡한 내력을 가지고 있지만 土豪라는 인물은 더욱 문제적이다. 그는 중국 여권, 미국 그린카드, EU 거류권, 캐나다·오스트리아·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의 복수 비자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누군가가 그에게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프랑스로 이주한 이유를 물어보자, 그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아무 이유도 없고 그냥 좋아서라고 하면 되겠느냐”(夏商, 2019: 548)고 되묻는다. 「碉堡」(陳河, 2018)의 주인공 阿禮는 이들과 또 다르다. 앞서 보았듯이 그는 알바니아로 이주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부득불 중국으로 역이주한 상태다. 그런데 “내게는 이미 집이 없다”(夏商, 2019: 87)라면서 언젠가 다시 집시죽인 아내 瑪尤拉와 함께 떠돌고 있는 아들 斯堪德培(東東)를 찾아 나설 계획일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그들을 따라 같이 유랑할 결심까지 가지고 있다. 이들의 정체성은 또 어떻게 불러야 할까? 아마도 앞의 두 유형과는 다른 ‘제3의 정체성’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혼중형·유동형 정체성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²⁹⁾

28) 이 작품은 상, 중, 하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항일전쟁·신중국 건국·대륙과 타이완의 분단·신중국 초기의 혼란·문화대혁명·중국 굴기 이후 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서, 상하이 출신 李玉平(吳若男)과 그녀의 딸 李小抗, 손녀 李蕊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여성의 곡절 많고 기묘한 삶을 그려낸다.

29) 이와 관련하여 임채완(2008: 473-474)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와 종족들과의 접촉을 경험하는 이민자들은 고정된 정체성의 벽을 넘어서 그 경계선 자체를 가변화시키거나 교착 내지 중첩 시킴으로써 정체성에 불박혀 영도화된 사고와 행동을 탈영도화한다. 어떤 면에서 이는 새로운 정체성,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변화되기에 고정시키지 않는 유목적(nomadic) 정체성을 형성한다.” 또 강수옥(2013: 93-94)에 따르면, 이른바 ‘조선족’의

정체성 개념은 1950년대에 에릭 H. 에릭슨(Erik H. Erikson)이 사회심리학의 맥락에서 ‘자아정체성(ego identity)’을 제시한 이후 1960년대부터 개인, 가족, 연령, 직업, 집단, 성별, 사회, 문화, 민족(종족), 국가 정체성 등등의 추상적인 것으로까지 급속히 확장되었다.³⁰⁾ E. H. 에릭슨(2014: 320)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정체성은 자기 시점에서 본 자신의 동일성과 연속성이 다른 사람의 시점에서 보는 자신의 동일성과 연속성에 잘 들어맞는다는 확신이 축적되어 형성된다. 즉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상호 작용의 산물이자 사회적 산물이다.³¹⁾ 그러므로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국적 이주자의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초국적 이주자의 정체성 변화에서도 보다시피,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의 등장은 초국적 세계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동안 국민 국가 단위로 사고하고 행동하던 패턴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스케일은 미시적인 것에서 거시적인 것까지 좁인과 좁아아웃하는 방식이 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경계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하는 것이 되었으며, 우리의 세계는 이제 국민국가의 모자이크로서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체성에 관한 담론 속에는 중국 국민정체성, 이중정체성, 정체성의 다변화(제3의 정체성)가 공통분모로 나타나는데, 정체성의 다변화와 관련하여 중국문화와 한반도문화의 취사선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특유한 조선족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한다.

- 30) 임영언·김한수(2017) 일부 참고. E. H. 에릭슨(2014: 54)에 부기되어 있는 옮긴이 송재훈의 설명에 따르면, 에릭슨은 ‘정체성’ 또는 ‘정체감’이라는 정신분석학적 용어를 심리사회학의 맥락에서 처음 사용했다.
- 31) 박종일·김은정(2008)에 따르면, ‘집단정체성’ 연구가 매우 중요한 사회학 영역에서 구성주의적인 ‘상호작용이론’이 등장하면서, 모든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의 산물이며, 권력의 주체들과 문화적 코드에 의해 만들어지고 재구성되고 재정의되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3. 화인화문문학과 트랜스내셔널 문학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미 화인화문소설에는 많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다. 오늘날 세계는 자원·정보·사람의 초국적인 이동이 일상화·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의 압축’과 더불어 개인에서부터 인류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동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동일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초국적 세계 인식이 형성되고, 전 세계적 범위에서 문화 혼종과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주자 이주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화인을 비롯한 초국적 이주자에게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는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간에 이동이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으며, 출발지-(경유지)-이주지와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이 모든 곳을 ‘자원의 획득처’로 활용하고,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고집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혼종적인 또는 유동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그동안 우리가 국민국가 단위로 사고하고 행동하던 패턴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인식 스케일은 개인의 미소한 삶의 차원으로 좁아지거나 전체 세계라는 차원으로까지 좁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경계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하는 것이 되었으며, 이제 국민국가의 모자이크로서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세계로 바뀔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다.

무엇보다 화인을 위시해서 초국적 이주자에게서 볼 수 있는 국가와 민족 관념의 유연화는 인류의 분류와 범주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³²⁾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가 보여주는 이른바 ‘제3의 정

32)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 또는 통일적 정체성을 갖춘 거대한 ‘상상의 공동체’라는 것은 아니다.

체성’으로서 혼종적·유동적 정체성은 국민국가 단위의 정체성 주변부 또는 접경지에 형성된 정체성이 아니다. 국민국가 단위의 정체성 그 자체와 무관하거나 그것을 해체하는 출발점이며, 자발적 비자발적 귀속을 강요하는 국민국가 단위의 정체성이 아닌 혼란·모호·갈등·혼종·유동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정체성이다. 초국적 이주자가 사용하는 복수의 언어 및 그 각각의 혼성적이고 선택적인 성격은 국민국가의 단일 언어 신화에 의문을 제기한다.³³⁾ 이런 차원에서 초국적 이주자의 문학 역시 지금껏 서구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국가 문학을 단위로 구성되었던 그런 ‘세계문학’이 아니라 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문학’을 상상 또는 도출과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에 제기된 트랜스내셔널 문학이라는 개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김성근(2009: 28-29)은 트랜스내셔널 문학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공간과 지리적 공간의 의미, 그들의 다중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방향과 고뇌를 성찰하는 것이 바로 트랜스내셔널리즘의 특성이라고 한다. 박선주(2010.2)는 그런데 트랜스내셔널 문학을 단순히 특정 종류나 장르의 문학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즉 어떤 국민문학으로 분류하기 난처하거나 그럴 수 없는 문학 또는 단순히 이중정체성과 이중언어의 경험을 반영하는 이민작가의 문학을 기계적으로 구분해서 부르는 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국민문학이 내재하고 있는 동질적이고 고정적인 정체성, 순수하고 단일한 언어, 국가 영토라는 구분된 지역 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혼종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 혼성적이고 다중적인 언어, 지역 범주화의 해체라는 지역 재개념화를 추구하는 문학이라고 한다. 요컨대 박선주(2010.5: 169)는 트랜스내셔널 문학은 문학을 사유하고 논의하는 기존의 방식을 재고하는 인식론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 어젠다는 문학의 구획화를 정당화하고 문학을 국민문학으로 도

33) 이 글에서는 분량과 맥락상의 이유로 언어 문제에 관해서 미처 검토하지 못했다. 임시방편으로 본문에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박선주(2010.2)의 견해를 참고하기 바란다.

구화하는 서구 내셔널리즘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초국적 이주자 문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동성, 가변성, 혼종성은 초국적 세계 인식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세계라는 우리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인식 체계를 구성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모색이 내재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초국적 이주자 문학이 자동적으로 트랜스내셔널 문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듯이 전자가 후자와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 점에서 초국적 이주자 문학 또는 그 일부로서 화인화문문학은 트랜스내셔널 문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미 화인화문소설을 다루었지만, 만일 화인의 비화문문학이라든가 비화인의 화문문학까지 함께 고려해본다면, 화인화문문학이 시사하는 바는 더욱 많을 것이다.

화인화문문학은 중국과 세계의 다른 국가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통로로서의 문학도 아니고 중국문학과 어떤 다른 국가 문학의 접경지 문학도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관행대로 특정의 국가문학 또는 특정의 민족문학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언어, 스토리, 담론 등 모든 면에서 그 어떤 국민국가 문학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비국민국가 문학이라는 범주로 귀속시킬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의를 지닌 문학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작가든 연구자든 간에 화인화문문학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문학’의 촉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 參 考 文 獻 】

작품

천하오취안 외 지음, 김혜준 외 옮김,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 서울: 지식출판사, 2016.

- 陳浩泉 主編,『楓華文集: 加華作家作品選一集』,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1999年.
- 陳浩泉 主編,『白雪紅楓: 加華作家作品選二集』,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3年.
- 陳浩泉 主編,『楓雨同路: 加華作家小說選』,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9年.
- 陳浩泉,『尋找伊甸園』,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4年.
- 陳謙,「虎妹孟加拉」,『北京文學』(精彩閱讀) 2016年 第11期.
- 黃運基,『奔流』異鄉三部曲1, 沈陽: 沈陽出版社, 1996年.
- 呂紅,「美國尋夢」,『女人的白宮』, 廣州: 花城出版社, 2005年.
- 融融、陳瑞琳 主編,『一代飛鴻: 北美中國大陸新移民作家短篇小說精選述評』, 美國: 輕舟出版社, 2005年 繁體原版.
- 融融、陳瑞琳 主編,『一代飛鴻: 北美中國大陸新移民作家短篇小說精選述評』,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8年 簡體再版.
- 夏商 主編,『海外華語小說年展 2019』,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9年.
- 嚴歌苓,『花兒與少年』, 北京: 崑崙, 2004年.
- 曾曉文,「鳥巢動遷」,『江南』2019年 第4期.
- 周潔茹主編,『香港文學』“美華文協小說專集” 2019年 11月號.

논문·기사·단행본

- 강수옥,「중국조선족의 역사적 형성과 정체성」,『디아스포라 연구』 제7권 제1호, 2013.
- 김성곤,『하이브리드시대의 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 김영민,「새로운 문화담론으로서의 초국가주의」,『영어영문학 연구』 제51권 제1호, 2009.
- 김혜준,「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가정과 그 의의」,『중국현대문학』 제92호, 2020.
- 김혜준,「캐나다화예작가협회(加華作協) 단편소설의 특징과 의의 — 캐

- 나다 화인화문문학의 의의와 과제」, 『중국현대문학』 제86호, 2018.
- 남호엽, 「지리적 관점에서 본 글로벌화의 의미」, 『글로벌교육연구』 제4집 2호, 2012.
- 롤런드 로버트슨 지음, 이정구 옮김, 『세계화: 사회이론과 전 지구적 문화』, 서울: 한국문화사, 2013.
- 마셜 맥루한·브루스 R. 파워스 지음, 박기순 옮김, 『지구촌: 21세기 인류의 삶과 미디어의 변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미카엘 로네 지음, 김아애 옮김, 『잘 안다고 믿는 것을 다르게 보는 법, 수학』, 서울: 클, 2021.
- 박선주, 「트랜스내셔널 문학: (국민)문학의 보편문법에 대한 문제제기」, 『안과밖』 제28호, 2010.5.
- 박선주, 「트랜스내셔널 문학의 소속과 지평」, 『한국현대문학(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10.2.
- 박선주, 『트랜스내셔널 문학: 경계의 언어, 언어의 경계』, 서울: 세창출판사, 2020.
- 박종일·김은정, 「집단정체성 연구에서 근원주의와 구성주의의 검토」, 『사회와이론』 제13집, 2008.
- 앤서니 엘리엇 지음, 김봉석·박치현 옮김, 『현대사회이론의 모든 것: 프랑크푸르트 학파부터 지구화론까지』, 서울: 엘피, 2020.
- 에릭 H. 에릭슨 지음, 송제훈 옮김, 『유년기와 사회』, 고양: 연암서가, 2014.
- 오경환, 「다문화주의와 트랜스내셔널리즘: 동향과 전망」, 『Homo Migrants』 Vol.1, 2009.
- 오경환, 「로컬, 글로벌, 트랜스내셔널 — 로컬의 트랜스내셔널한 구축을 위하여」, 『로컬리티 인문학』 16, 2016.
- 위르겐 오스터함멜·닐스 P. 페테르손 지음, 배윤기 옮김, 『글로벌화의 역사』, 서울: 에코리브르, 2013.
- 윤인진,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고전 및 현대 연구 검토」, 『재외한

- 인연구』 제28호, 2012.
- 임영언·김한수,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과 다양성에 관한 고찰」, 『한국과 국제사회』 제1권 제2호, 2017.
- 임채완, 「세계화 시대 ‘디아스포라 현상’접근: 초국가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49집, 2008.
- 제프리 웨스트 지음, 이한음 옮김, 『스케일: 생물·도시·기업의 성장과 죽음에 관한 보편 법칙』, 파주: 김영사, 2018.
- 토마스 힐란드 에릭슨 지음, 정연우 옮김, 『과열: 폭주하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서울: 나눔의집, 2019.
- 토머스 프리드먼 지음, 이건식 옮김, 『세계는 평평하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파주: 21세기북스, 2013.
- 토마스 프리드먼, 「홀로세가 끝나고 인류세가 시작되다」, 폴 크루그먼 외 지음, 오노 가즈모토 엮음, 최예은 옮김, 『거대한 분기점: 8인의 석학이 예측한 자본주의와 경제의 미래』, 서울: 한스미디어, 2020.
- 필립 A. 쿤 지음, 이영옥 옮김,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 근대 중국인의 동남아 이민』, 서울: 심산, 2014.
- 한수경, 「세계화(지구화) 이론의 모순」, 『정치와 평론』 제8집, 2011.
- 豐雲, 「新世紀以來的新移民小說發展芻議」, 『山東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21年 第2期.
- 公仲, 「陳河『獠』: 一場寓意深遠的人獸大戰」, 『文藝報』, 2014.3.28.
- 海雲, 「无悔人生」, 牧童歌謠, 『北美楓情: 一代留美學生的故事』, 北京: 新華出版社, 2018年.
- 孔飛力 著, 李明歡 譯, 『他者中的華人: 中國近現代移民史』,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016年.
- 梁麗芳, 「擴大視野: 從海外華文文學到海外華人文學」, 陳浩泉 主編, 『白雪紅楓: 加華作家作品選二集』,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3年.
- 呂曉琳, 『美國華人小說中的雙重他者性與文化身份認同——以近期移居派華

人華文小說與華人英文小說爲中心』, 釜山大學博士學位論文, 2019年.

湯俏, 『北美新移民文學30年』,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20年.

周敏 著, 郭南 審譯, 『美國華人社會的變遷』, 上海: 上海三聯書店, 2006年.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Measuring Digital Development: Facts and figures 2021*, 2021.

Robertson, Roland.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1992.

UN(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7: Highlights*, 2017.

UN(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9: Highlights*, 2019.

UNWTO(World Tourism Organization), *International Tourism Highlights, 2010 Edition*, 2010.

UNWTO(World Tourism Organization), *International Tourism Highlights, 2020 Edition*, 2020.

【Abstract】

The Transnational Consciousness and Expressions of Overseas Chinese in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Fictions

Kim, Hyejo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transnational consciousness and expressions of overseas Chinese in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fictions published in the last 20 years. It also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the transnational literature with the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which is a part of the transnational migrant literature.

Many things are expressed in the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fictions. In today's world, the transnational movements of resources, information, and people are becoming commonplace and accelerating. In addition, humans, from individuals to human level, are virtually connected to each other in real time in the same space in any way. A transnational consciousness is being formed, and cultural hybridization and identity changes are taking place around the world. All these changes suggest that the pattern in which we

have been thinking and acting on a nation basis may change.

As a part of the transnational migrant literature, the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is not a bridge or channel between China and any other nations in the world, nor is the border between Chinese literature and any other national literature. It is a literature with a completely different dimension that does not belong to national literature in all aspects, such as language, story, and discourse, but at the same time cannot be attributed to the category of non-national literature.

Of course,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does not automatically become transnational literature.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former has many contacts with the latter. Mobility, variability, and hybridity, which are common in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demonstrate transnational consciousness. It raises the question of our perception of the world as a mosaic of nation-states and seeks to construct a new perception that is different from that.

Key words: overseas Chinese,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fiction, transnational consciousness, transnational migrants, transnational migrant literature, transnational literature

접수일: 11월 30일, 심사기간: 1월 3일~1월 10일, 게재 확정일: 1월 11일